

and Innovations, 컨비너: ETRI 이승윤 실장)는 올해 핵심 표준화 기술로 인공지능(AI) 분야를 결정하여 현황 및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JTC 1 권고안을 만들어 총회에서 발표하였다. 미국은 한국 주도의 JETI 결과물을 토대로 인공지능(AI) 관련 신규 SC 설립을 제안하였고, 또한 JTC 1/WG 9(빅데이터) 업무가 신규 SC에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으며, 신규 SC(SC 42) 설립 시 간사국 및 의장(Wael Diab, 미국 화웨이) 수임 의사를 피력하였다. 만장일치로 신규 AI SC 설립이 최종 결정되었고, 기존 JTC 1/WG 9(빅데이터) 그룹의 이관 여부는 일부 국가의 이견이 있었으나, 대다수 국가의 지지로 SC 42로 이관키로 하였다.

2.3 JTC 1 시스템 통합 표준 기술개발을 위한 ad-hoc 그룹 구성

한국은 JTC 1의 미래전략 수립 활동 및 Systems Integration 역할을 정착시키기 위해 JAG 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. 2014년부터 한국이 JTC 1의 Systems Integration 활동에 기여해온 Meta-Reference Architecture, Use Case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이제 여러 P 멤버국에서도 인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. 그 결과 한국은 JTC 1 총회에서 Systems Integration을 위한 Meta-Reference Architecture의 ad-hoc 그룹 설립을 제안하여 승인받게 되었다. ad-hoc 그룹(컨비너: ETRI 이병남 전문위원)은 JTC 1 산하 시스템통합 표준그룹이 적용할 수 있는 Meta Reference Architecture와 이와 병행하여 JTC 1 SC의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차기 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.

2.4 JTC 1 총회 연 2회 개최(2019년부터 시행)

미국(N13509)은 현행 JTC 1 총회 규모의 미팅 3회(JTC 11회, JAG 2회)는 JTC 1 참여국가와 JTC

1 산하 그룹에 부담이 되므로, 2019년부터는 JAG을 폐지하고, JTC 1 총회를 연 2회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. 최종 논의 결과, 2019년부터 JTC 1 총회를 2회(5월, 11월 초)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. JTC 1은 2019년부터 이를 원활하게 진행(Smooth transition)할 수 있도록 JAG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JTC 1 총회에서 보고토록 요청하였다.

3. 주요 성과

한국이 금번 회의에서 이룬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.

- 한국 주도로 3D 프린팅 및 스캐닝 작업반(JTC 1/WG 12)을 신설하고 컨비너(ETRI 이병남 전문위원)를 수임하였다.
- JTC 1의 미래기술전략을 담당하는 JETI 그룹의 첫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 SC 설립 주도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JETI 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으며, 향후 JTC 1 조직 정비과정에서 JETI는 중요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룹으로 부각되었다.
- 시스템 통합 표준 ad-hoc 그룹 설립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았고, 차기 JTC 1 총회(2018. 11월, 스톡홀름)에 활동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. 특히, 이번 JTC 1 총회를 통하여 설립된 시스템 통합 표준 임시 연구 그룹의 활동 내용이 상당 부분 한국의 기고 활동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한국의 시스템 통합 표준에 대한 선도적 위치를 JTC 1 참가자들에게 인식시키게 되었다.
- 교육 AR/VR 표준화 ad-hoc 그룹 신설을 승인받고, 컨비너(수원대 이명원 교수)를 수임하였다.
- 이번 총회에서 총 5개의 그룹(SC, WG, Ad Hoc 등)이 신설되었으며, 한국은 이 중 4개에 관여 및 주도를 이끌어내었다.

4. 향후 대응 계획

4.1 3D 프린팅 작업반

금번 총회에서 설립된 3D Printing and Scanning 작업반(JTC 1/WG 12) 활동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과 국내 JTC 1 3D프린팅 표준화 전략을 마련한

다. 3D프린팅 및 스캐닝 신규 NWIP 2건의 투표문서를 준비하고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며, 3D프린팅 및 스캐닝이 2018 또는 2019년에 한국 주도의 SC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한다.

4.2 인공지능 신규 SC

신규로 설립된 JTC 1/SC 42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련 전문가 발굴을 추진한다. 이를 토대로 국내 AI 전문가가 SC 42 NWIP 준비를 추진하며, 국내 AI 전문가의 SC 42 WG의 컨비너 수임을 준비한다.

4.3 JTC 1 미래기술전략

JETI는 JTC 1 차원의 미래 신기술 표준화 분석 및 전략 개발을 담당하며, 향후 JTC 1 차원의 별도 전략 그룹으로 그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신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활용을 병행하며, 관련 이슈 제안 및 전문가 보강을 통해 JETI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간다.

4.4 시스템 통합 표준

JTC 1 미래 역할 및 생존 전략에 크게 영향을 줄 Systems Integration 분야의 ad-hoc 활동에 적극적인 기고 및 컨비너 활동을 통해 JTC 1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한다.

2018년 총회 이전에 JTC 1 SI SC/WG, IEC SI TC, Industry Best Practices 등에 대한 Survey 및 Literature Study를 통해 JTC 1 Meta-Reference Architecture와 참조 아키텍처의 가이드라인 문서를 산출한다. 또한, 2018년 총회 시 향후 ISO와 IEC의 TC들 및 JTC 1의 SC들에서 시스템 통합에 필수적인 Meta-Reference Architecture의 실질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.

5. 맺음말

2019년부터 JTC 1은 연 2회 총회 개최, 내부 전략기능 강화, 외부 협력 기능 강화 등 표준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동 변화가 예상된다. 특히, 신임 의장 체제로 변경 후 미국은 JTC 1 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의견들을 적극 개진 및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된다.

JTC 1에서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위상과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. 미국은 의장국과 간사국으로서 현재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JTC 1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전통적 우방국인 캐나다 이외에도 독일,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,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신규 SC를 큰 어려움 없이 설립하게 되었다. 또한,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고 지원함(3D프린팅 작업반 신설, JTC 1 시스템 통합 표준 기술개발을 위한 ad-hoc 그룹 신설)으로써 주도적 위상 및 미래 지향적 역할에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. 이에 반해 중국은 인공지능 및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의지는 있으나, 아직 JTC 1 대응 중국 인력의 경험 부족으로 이번 JTC 1 총회에서 대응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

금번 JTC 1 총회를 계기로, 한국은 JTC 1 총회의 주요 안건(3D프린팅, 인공지능 등)을 대부분 리딩하면서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, 시스템통합 표준, JETI 활동을 통해 미래 표준화 이슈의 선제적 발굴 및 주도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. 